

교회학표

신성한 예배
전국일동 창성
민족복원과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간 총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아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골로새 3:12)

대한예수교총회 창립회 헌원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2002 총원교회

THE WEEKLY CHUNG HYEO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국장: 이형수



추수감사절 및 전(全)교인 가족연합예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여덟 배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눅 18:14)

오늘은 2002년도 '추수감사절'이며 전(全)교인 "가족연합예배" 주일이다. 오늘이 모든 예배를 통해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도 받들 믿는 참된 용서와 의롭다함을 받으므로 베푸신 은총에 감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란다.

달고 오묘한 그 맛을 / 11월 15일 금요일

3. 구역 안에서 이방인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개인들 ② 나야만 장군의 사건이 주는 선교적인 암시

열왕기하 5장 12절-19절 사이에 기록된 '나야만' 장에 대한 기사는 '헬리사' 선지와 관련된 사건들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동원된 깊은 뜻을 담고 있는 이야기이지만, 이름조차 기록되어 있지 않은 한 젊은 유대인 여종이 '아람' 왕의 군대장관에게 하나님을 증거한 선교적 암시를 뚜렷하게 밝히고 있다.

'나야만' 장문에 주어진 '아람'의 '군대장관'이라는 호칭은(왕하 5:1) '군대장관 비굴' (창 21:22, '아람의 군장 시스라' (창 12:9),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군 '요압' 에게 쓰여졌던 용머리띠)을 가리키는 사기 높은 지위에 있는 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아기에 한층 더하여서 그는게는 '크고 강한' 사람들이 감당하기 불가능하게 용에게까지 사회적으로 더 바랄 것이 없는 훌륭한 사람으로서 용에게까지 인정받은 자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놀라운 일은 '여호와께서 전(前)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는 말씀이(왕하 5:1). 이를 기록한 히브리언은 비록 신학적으로선 정확한 말도 아니고, 정치적으로선 분명히 달갑지 않은 것을 기록한 것이다. 진실로 새 우주만물의 주인인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원수인 이방인까지도 사용하시는 것을 보여주었고,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본능적으로 '아름게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사용하실 수 있단 말인가?' 하고 스스로 묻게 된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을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도우며 사용하실 정도가 아니라 구원에 이르게까지 하심을 깨달을 수 있다.

이들의 실재에서 모든 것을 성취하여 더 바랄 것이 없도록 만족한 상태에 있는 듯한 나야만이, '문둥병 환자'로서, 다시 사회에서 문둥병을 피하며 광란된 병자이기 때문에 '나야만'에게는 매우 수치스러운 것이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아람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면서 잡아왔던 나야만 부인의 수종을 들던 '작은 개집이'가(왕하 5:2), '나야만'의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다가 마침내 입을 열어 그의 여주어머니 여호와를 증거하게(왕하 5:2, 3) 하였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 작은 여주어머니의 이름을 모른다. 또한 어떻게 이 아기가 그러한 귀한 비밀을 알고 있었는지도조차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여주어머니의 말에는 분명하게 '선지자가 섬기는 하나님께서는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더군다나 그녀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만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고쳐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있었다. 그래서 이 여주어머니는 '나야만' 같이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고침을 받기 위해서는 그가 선지자 곁으로 가야한다는 것을 확신했다.

'나야만'은 이 여주의 말을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이것을 왕 앞에 보고 고하였다. 비록 왕이만, '나야만' 개인에게 닦은 자리에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여 주지 않았던 왕은 그에게 이스라엘에 보내줄 것을 기뻐! 하라면서 다음과 같이 추천장을 써주었다. '내가 네 선지자 나야만을 당시에 보내왔으니 기뻐! 내게만에게서 따르거든 당시에 그 문둥병을 고쳐 주시라'(왕하 5:6). 그 당시 이스라엘은 아람으로부터 계속적인 침해를 받고 있는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은 추천서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왕하 5:7). 이처럼 두 나라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나야만' 왕이 '아람' 왕의 편을 들어 주고 칭찬한 것만으로도 '나야만' 왕을 나무랄 수 없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종로로 접어들어 멀리 끌려간 거센 개집장과 문둥병을 앓고 있는 이방인 군대장관, 그리고 이방인의 왕까지도 알고 있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즉, 이스라엘에 하나님과 선지자가 계시다는 엄청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위기에 처하여 이스라엘과 그 지도자들이 어디로 관심을 돌려야할지 모른다는 사실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원칙적으로 생각하면,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이웃 나라를 위하여 장차적인 계획을 찾기 전에, 그들 가운데 함께 살고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닌가? 그러나 슬프게도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 당시 하나님께 백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처럼 나락하였을 개중에는 그것이 다.

선지자 '헬리사'가 왕이 옷을 찢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사정을 알아보기 위하여 아람을 보냈다.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자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왕하 5:8). 하나님께서는 이미 '헬리사'에게 무엇이 왕을 섬기며 왕에게서 만났는지의 여부를 보우셨다. 그리고 하나님께 알리자면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 것도 없으며,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지자에게 가장 온전한 것까지도 보여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지시를 받은 '나야만'은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의 집을 찾았고, 그 선지자가 자기를 반기기 맞이할 것을 기대하였다. 그러나 '헬리사'의 시한으로부터 '오전' 강에 몸을 일굴 뿐 '씻으라'는 명령을 받게 되었고(왕하 5:10), 그로 인하여 깊은 결별을 느꼈다. 바나 때에 '나야만'의 증명은 단순한 이유로 견뎌졌다.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곧 일을 행하라 하였던가? 한치 이 나았으리인가?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까지 씻어 깨끗하게 하라 왕이리인가'(왕하 5:13).

크고 존귀한 아람의 군대장관 '나야만'은 요단강에 가서 자신의 몸을 담그기 시작했다. 한반반 이 아니라 일곱 번을 담갔던 것이다. '나야만'은 매번 담갔을 때 몸과 다리가 같이 흔들리는 사람에게 요구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행동의 효과와 타당성을 의심할지라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사명이 지시한대로 일곱 번 몸을 담갔고, 그 결과 "그 선지자 여호와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다(왕하 5:14). '나야만'은 오직 여호와만이 이 땅위에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임을 깨닫게 되었다(왕하 5:17, 행 4:12, 요 17:3).

그렇다면 군대장관 '나야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곧 자리에 있는 모든 민족을 축복하시겠다는 약속도 전하여졌을까? 또한 아람나라에 접한것인 이스라엘의 개집장은 자리에 있는 모든 민족을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개신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였을까? 이러한 의문에 대하여 우리는 '나야만' 이 이스라엘 하나님에 관하여 믿고 알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나야만'이 두려워 몰라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로로 나야만과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고 담겨 왕이 손을 흔들며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왕하 5:15). 여호와와 '야해'는 특별히 하나님과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부르는 명칭으로 알려져 있고, 일반인들은 하나님 곧 '엘로하'로 부르는 것이 상식이었으며, '나야만'은 하나님을 '야해'로 부르고 있었다.

또한 '나야만' 이 17절에서 여호와께만 반례를 드리기보다 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어떤 요인들이 그 하여금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한 것 중일까? 또한 '나야만' 장군이 '헬리사'에게 자신이 '아람' 왕과 함께 아람강으로 들어가기로 할 일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왕하 5:18)? '나야만'이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왕의명령이다. '나야만' 장군이 '헬리사' 앞에서 자기를 위하여 '당신의 종'이라고 하며 변 표현한 것을 볼 때에 그가 겸손하였다는 사실 이(왕하 5:15). 그리고 '나야만' 장군이 '헬리사' 선지자에게 주려고 가지고 왔던 '영향난 선물들'을 받아달라고 요청하였을 때 '헬리사'는 단호하게 거절하였다. 그것은 '나야만' 이 병 고침을 받고 영적으로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지불한다는 생각을 잘못 갖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자 '나야만'은 '헬리사' 선지자를 향하여 세 가지 질문을 요청하였다. 첫 번째는, '나야만' 두 마리에 실을한 이스라엘의 왕을 달라는 것이다. 바나 이것은 당시 고대 동양에서 널리 행해지고 있는 미신적인 믿음에 지나지 않지만, 나야만은 본래에 왕이까지 여호와를 경배할 때에 좋은 땅에서 예배하고자했었다. 두 번째로, 그 그 본래에 돌아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줄을 요청하는 것이다. 이 사실 역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땅에서부터 제사를 드리는 것 때때로 생겨나고 있다. 그런 연고로 '나야만'은 '헬리사'에게 '이제 내게 이스라엘 왕을 온전히 얻어 신 없는 줄을 가져다다'(왕하 5:15)라고 신명직을 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야만'이 아직도 한 가지 더 깨달아야 할 것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여호와 하나님은 온 전하의 하나님이지 결코 이스라엘 안에만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것이다. 마지막까지 세 번째는, '나야만' 이 '헬리사'에게 본래에 돌아와서 자신의 왕을 모시고 '아람' 나라 최고의 신, '밀몬' 땅에 들어가서 그 왕을 숭배하는 것을 용서하여 주기를 간구한 것이다. '밀몬'은 '하트' 또는 '바빌'로 알려져 있는데, 그 당시에 셈족들은 '밀몬' 이 비를 내리는 신으로서 농작물의 풍성함을 가져다준다고 믿고 있었다.

이 세 가지 요청에 대하여 '헬리사'는 단지 '평안히 가라'(왕하 5:19)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말하지 않았다. 이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나야만'의 생각을 인정해 주는 것일까? 아니면 이 세 가지 모두 하라라는 것일까? 분명한 것은 '나야만'은 그의 생각의 잘못보다 '헬리사'를 신뢰하는 종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는 자이다. 그리고 그가 경이 어린 '나야만'과 대담하게 보인 '요단강' 이 이제는 흘러내리고 다리가 돌이키어 할람을 증조한 곳으로 생략하게 되었다. 또한 그는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라'라고 고백할 믿음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깨달았었다. 그래서 이같이 용서를 구하며 괴로워하고 있는 '나야만'의 마음을 회복시킨 '헬리사'는 '평안히 가라'는 말 외에 멀리 할 말이 없었을 것이다. '헬리사'는 자기를 인도하신 여호와와 하나님을 믿는 '나야만'의 신심을 '평안히 가라'는 복음의 말로 표현한 것이다.

이처럼 여호와께서는 구약시대에도 민족의 하나님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믿는 아람의 군대장관까지도 자신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진심으로 순종하게 하셨다. 그리고 세 가지 이치를 겸한 환경에 처하게까지 하셨고, 약속하신 바를 소신을 아람에 피파되하셨는 일에 선구자로 사용하셨다. 이다. 그러므로 구역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아람은 오직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이스라엘이 구역의 역사 안에서 종파적으로 존재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복된 소리는 세계 방방곡곡에 동등적으로 또는 수동적으로 전파되어 갔었던 것이다.

다대제와 성경은 '나야만'의 이름을 길고 지어지게 했을까? 만일 선지자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여주기 위하여 '나야만'에 여호와께로 오고 같이 말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선지자가 직접 오랑 강에 가서 신도침으로 그 능력을 과시하지 않았을까? 이 모든 질문을 통합해서 설명할 수 있는 한 가지 대답이다. 그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는 것은 모든 민족을, 심지어 원수까지도 하나님께로 부르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인 것이다. 그러므로 세상의 어떤 것, 비록 존귀함과 높은 지위일지라도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와 자비하심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이와 동시에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진화하기 원하시는 그 계획은 어떤 민족과도 방해하지 마라 수 있다.

'나야만'의 극적인 병 고침의 사건의 결과로 '여호와' 왕 왕에게 '헬리사'는 '다대제'를 명문화하게 되었다(왕하 8:7-15). 그때에 '벨다아' 2대는 '헬리사'가 '다대제'에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그의 신인 '하사엘'을 보내어 자신이 병에서 나을 수 있을 것임을 묻게 된다. 그 때에 '헬리사'는 그 자신이 일의 뒤를 이을 자를 왕에게 고한 것을 진정하였다. 이처럼 구역에 나타난 선지자의 활동의 범위는 광범위했었다. 이스라엘에 개집장이 되었으므로 개집장이 되고 아람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외교적인 사명에도 사용되었던 것이다. '요나' 선지자가 '나야만'을 향하여 의의 메시지를 전하였던 것처럼, '헬리사'도 오만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의 메시지를 전달하였을 것이다. 예수께서 나사렛에서 이와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보다, 선지자 열리사 때에 이방인에게 많은 문물이 있었으리라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리라 오직 우리 사람 나사렛뿐이니라'(눅 4:24, 27).

LIFE OF CHRISTIAN

(2 Timothy 4:1~5)

"I solemnly charge you in the presence of God and of Christ Jesus, who is to judge the living and the dead, and by His appearing and His kingdom: preach the word; be ready in season and out of season; reprove, rebuke, exhort, with great patience and instruction. For the time will come when they will not endure sound doctrine; but [wanting] to have their ears tickled, they will accumulate for themselves teachers in accordance to their own desires; and will turn away their ears from the truth, and will turn aside to myths. But you, be sober in all things, endure hardship, do the work of an evangelist, fulfill your ministry."

In today's message Paul gives a solemn charge to Timothy, a soldier of Christ. He tells him, "I solemnly charge you in the presence of God and of Christ Jesus, who is to judge the living and the dead, and by His appearing and His kingdom"(v. 1). These words indicate the extreme seriousness of Paul's communication. He wants Timothy to really pay attention here. The significance of what he's about to say is so critical, crucial, and central. His declaration is like a dying man's last words. From all his life experiences, Paul wants to give Timothy a great truth. When you look at Paul's life you can see the many conflicts and deep involvements he endured. He killed Stephen, persecuted Christians, and then received beatings, stoning, and starvation from the Pharisees because of his faith. After all this suffering, he earnestly commands Timothy to "preach the word". We don't know if he had one week or one month left to live before he wrote this letter. We do know that he knew he was going to die. "For I am already being poured out as a drink offering, and the time of my departure has come"(v. 6). In his last efforts, Paul really explained to his lovely disciple Timothy the Christian life.

The Christian life is a life of conflict. In front of God and Jesus Christ, Paul solemnly charges soldiers of Christ (Christians) to preach the word. In this world Christians stand out; all other people are like lions in a lion's den. Satan wants to completely drown or swallow up our testimony. Peter confesses from his Christian life experiences to "Be of sober spirit, be on the alert. Your adversary, the devil, prowls around like a roaring lion, seeking someone to devour"(1 Pet. 5:8). Indeed, we have enemies all over the place. They're like hungry lions, looking for us all the time, and waiting for any chance to pounce on us. Peter sincerely warns us to watch out for them. Too many Christians think that once you become a Christian your life will be carefree and flowery blessed. They think they'll become great leaders, respected by everyone, and appreciated. It's not true—it's a lie. That's not the Christian life. The Christian life is filled with conflict. The Son of God, the Mighty King, came to this earth and everywhere He went He experienced suffering and persecution. He didn't even have a place to lay His head. Jesus told His disciples, "Go; behold, I send you out as lambs in the midst of wolves"(Lk. 10:3). That's this world. Please believe, my dear friend, that this world is trying to snatch you away. The Christian life is constantly at odds with the world.

Jesus tells us, "do not resist an evil person; but whoever slaps you on your right cheek, turn the other to him also"(Mt. 5:39). Paul says, "Suffer hardship with me, as a good soldier of Christ Jesus"(2 Tim. 2:3). These actions truly conflict with the world's ways. Many church leaders want to be big, political, and well liked. And while there maybe a season to be liked, living for this isn't right. You have to fight the battles of Christian living with faith. Please don't compromise with the world. You have to be ready "in season and out of season". You have to endure until the end with reproving, rebuking, and exhorting others with "great patience and instruction".

How can you live in conflict with this world? Paul answers, "I affirm, brethren, by the boasting in you which I have in Christ Jesus our Lord, I die daily"(1 Cor. 15:31). Paul practiced his faith. If you try to go out and do things on your own, you will fail. The enemy is stronger than you. But if you die to yourself and follow Jesus, you will ultimately have victory. He empowers you with His Spirit. My dear friend, you have to practice your faith. Do you understand what it means to practice faith? It means you die daily and let the Holy Spirit live in you. That's living! Paul had a dangerous life everyday because he did not compromise. He died everyday so that Christ could live in him. That's why he suffered. With him the cross came first. Giving up yourself is the

Christian life. Jesus will enable you to fight against the fear and horror of this world. Make use of your God given gifts, don't hide them in fear, "And I was afraid, and went away and hid your talent in the ground"(Mt. 25:25). Are you doing this? If you believe in Jesus, He will work with you and you will never fail.

The Christian life is a joyful life. When Peter and the apostles were beaten because of their faith, they rejoiced that they had been considered worthy to suffer shame for Jesus' name(see Acts 5:41). Even though they had experienced suffering and shame, they went on rejoicing. Why did they rejoice? They considered it worthy to suffer for Jesus. If you really practice your faith you will suffer but deep down inside you will have joy. You will have joy because you didn't compromise, you took the cross and were loyal to Jesus Christ. The Bible clearly tells us, "You cannot drink the cup of the lord and the cup of demons; you cannot partake of the table of the Lord and the table of demons"(1 Cor. 10:21). The world calls you to itself with many different enticements, like a beautiful job and lots of money. It doesn't want you to go to church on Sunday. It wants you to serve wealth. Many people fall victim to its whims, that's why they have no peace inside. Jesus says, "Behold, I stand at the door and knock; if anyone hears My voice and opens the door, I will come in to him and will dine with him, and he with Me"(Rev. 3:20). Jesus will live with you and eat with you. He will do it. The world calls you away to death but Jesus calls you to life. If you don't practice your faith you can't hear His voice. If you practice your faith you will hear His voice and He will be with you in every way. That's the Christian life. Until you practice, you won't know or feel this great peace. Paul and Silas knew this peace. After they were beaten and imprisoned, they began "praying and singing hymns of praise to God"(Acts 16:25). How can this be? Can you do it? Yes, with Jesus there is wonderful, glorious peace and astounding joy!

Christian life requires giving. Christians understand that Jesus gave all His body for them, all His love. They know He is the bread of life(see Jn. 6:48). Through His death and resurrection they receive eternal life, eternal peace, eternal victory. We have to share God's blessings and grace with others. That's why in today's Bible message Paul calls on Christians to "preach the word; be ready in season and out of season". That's the life of a Christian. That's the way we give.

What does it mean "in season and out of season"? In season refers to those with hearts in church ready to listen. Out of season concerns the places where the Gospel is not talked about. Wherever you go, it doesn't matter where you go, you have to preach the Word. That is the eternal blessing. Don't waste time talking about nothing, like philosophy and other such stuff, only talk about God's grace and judgment. Talk about this stuff. "For the time will come when they will not endure sound doctrine; but wanting to have their ears tickled, they will accumulate for themselves teachers in accordance to their own desires, and will turn away their ears from the truth and will run aside to myths"(vv. 3-4). Stay focused on the Gospel. Make the time, make the condition, make the environment favorable to preach the word.

Christians can't be selfish. If they become selfish they cannot preach the word. Selfishness and Christianity don't mix. Whoever is selfish is not a Christian. When you deny yourself then you are a Christian. "But you, be sober in all things, endure hardship, do the work of an evangelist, fulfill your ministry"(v. 5).

Paul truly dedicated his word to Timothy, and also to you and I. Solemnly he talked to him, and the Spirit to us, in front of God and Christ Jesus, "who is to judge the living and the dead, and by His appearing and His kingdom", about the Christian life. Amen. ■

다들 주일 학교

디모데를 향한 마지막 권고

오늘의 본문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야 한다는 엄중한 책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섬판하심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1절)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은 바울의 의사전달에 있어서 가장 진기한 실각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자신의 말에 진정으로 귀 기울여 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이 전하려는 중요한 의미는 매우 비평직적이고, 혹독하며 핵심적인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그의 선언은 마치 줄이 가는 사람의 유언과도 같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모든 인생의 정경에 비꼴듯 위대한 진리를 디모데에게 전해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바울의 생애를 바라볼 때, 그는 많은 충돌과 사건 속에서 건디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때 그는 스페인을 죽이고, 그리스도인들을 팔파하기도 했으나, 후에는 그의 믿음 때문에 바사리온들에게 매를 맞고, 돌에 맞았으며, 굶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죽음으로 인하여 모든 고난을 당한 뒤에, 디모데를 향하여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파하라고 명령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기록할 때, 살 수 있는 날을 한 주를 남겨놓고 있었지만, 한 달을 남겨놓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바울이 자신에게 죽음의 임박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핵과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일이 가까워오다"(6절). 바울의 마지막 수고로서 그는 진실로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설명하였습니다.

(딤후 4:1~5)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섬판하심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매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러니 사람이

바를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세상과 투쟁하는 삶

그리스도인의 삶은 투쟁의 삶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을 전파하라는 그리스도인의 굳건한 직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논쟁에 뛰어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회권에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사람은 우리의 신념과관을 완전히 겸식시키거나 선택하려고 싶어합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의 인생 정경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살짐 자를 찾나니"(베후 5:8). 참으로 우리는 모든 곳에서 투쟁을 대하게 됩니다. 그들은 불된 사자와 같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찾아서 우리에게 상처를 달려줄 기회를 노리는 그런 사자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진지하게 그들을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은 근신 없이 화산처럼 폭발을 받은 삶이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대한 지도자가 되거나 모든 사탄들의 공격을 받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절이 말하는 진실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투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위대한 왕은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고난과 박해를 받으셨습니다. 그는 머리 돌 못 쓰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하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떤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려 고도"(요 10:3). 이러한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여러분들을 갑자기 잠자게 가려고 하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삶은 계속 이 세상과 불화(不和)한 곳에 놓여 있습니다.

고난받는 삶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마 5:39). 바울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나"(딤후 2:3). 이런 행동들은 진실로 세상의 삶과 방식과 투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위대해지고, 경직적이며, 말씀을 누리려고 하는 삶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면 그와 같은 삶을 누리게 될지도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믿음으로 싸움을 싸워야만 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반드시 때를 얻든지, 또 얻든지 싸움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는 일을 끝까지 감당해야만 합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

여러분은 얼마나 이 세상과 투쟁하며 사십니까? 바울은 말씀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항한 나의 자람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전 15:3). 바울은 자신의 믿음을 실천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세상으로 나가서 자신의 힘으로 행하려고 노력한다면, 여러분은 실패할 것입니다. 원수는 어디 분보다 강합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다면, 여러분은 최후에는 승리할 것입니다. 주께서는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권능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실천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믿음을 실천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십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매일 죽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살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바울은 세례하기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매일 죽었고, 그 까닭에 그리스도에게 그 안에 자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가장 바울이 고난받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우선적인 것으로 다가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예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 세상의 두려움과 공포에 대항하여 싸울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사용

하십시오. 두려움에 의해서 숨겨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단락들을 땅에 감추어 두셨어야 합니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실 나이다"(마 25:25). 여러분이 혹시 이렇게 하십니까? 만일 예수를 믿으신다면, 그분께서 여러분과 함께 일하실 것이며, 여러분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참된 평안을 누리신 삶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쁨이 가득한 삶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그들의 믿을 때문에 매를 맞을 때,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능욕을 받은 것을 단언하며 여기기 기뻐했습니다(행 5:41). 비록 그들이 고난이나 수치를 경험했음직라도, 그들은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들이 기뻐했습니까? 그들은 예수를 믿고 고난을 존중하여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여러분들이 자신의 믿음을 실천한다면, 고난받더라도 내면 깊은 곳에서는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진실로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께 충성하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때, 참된 기쁨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것을 말합니다. "너희가 주의 영광과 귀신의 잔을 권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삶과 귀신의 잔에 경여하여 침에 치 못하리라"(고전 10:21). 이 세상은 여러분이 타당한 직업을 맡은 돈과 같은 여러가지 매혹적인 것들로 끌려가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 것들은 여러분이 주일에 교회에 오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향해서 재물을 섬길 것을 부추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번번이 돈을 마음 때문에 희생당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내면에 경건이 없는 이유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라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마 3:20). 예수께서 여러분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실 것입니다. 주께서 그것을 하길 원합니다. 세상은 여러분이 멸망으로 나아오도록 초청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생명을 초청하십니다. 만일 여러분이 믿음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믿음을 실천한다면 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고, 그분은 여러분과 함께 모든 길을 동행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실천할 때까지는, 이러한 놀라운 평강을 깨닫거나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바울과 살라미의 이러한 평강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후에, 그들은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미"하였었습니다(행 16:25).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수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으면, 놀랍고 영광스러운 평강과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배우는 삶

그리스도인의 삶은 배움에 한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신의 몸과 모든 것과 진심으로 사랑을 베푸신 것을 사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께서 생명의 값이었던 자신을 십자가에 고치(요 6:48). 주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영생과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승리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성경본문에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배우는 삶을 말합니다.

말씀만을 전하는 삶

"매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매를 얻든지"라는 말은 교회 안에 말씀들을 들을 준비가 되어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언급합니다. "매를 못 얻든지"라는 것은 복음이 들리지 않는 곳과 같은 장소와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으로 가시든지, 그 곳은 꼭 재제가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말씀을 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축복입니다. 철학 또는 다른 쓸데없는 소리, 즉 아무 것도 아닌 것들을 논리적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단지 하나님의 은혜와 심판에 대하여 말하십시오. 성경은 이 쓸데없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말합니다. "때가 이르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져 자기의 사욕을 좇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3~4절). 복음을 초청을 맞추십시오. 말씀을 전할 시간을 만드십시오. 말씀을 전하기 위한 상황도 만드십시오. 말씀을 전하기 위한 유익한 환경도 만드십시오.

이기적이지 않은 삶

그리스도인은 이기적이 될 수 없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이기적이 된다면, 그들은 말씀을 전파할 수 없습니다. 이기적이고 그리스도 정신은 절대로 함께 섞일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이기적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부인할 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딤후 2:3).

언제나 동일한 그리스도인의 삶

바울은 진실로 디모데에게 말씀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대해서도 동일합니다. 바울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오 늘날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섬판하심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아멘. ■



김성복 목사

CIS(독립국가연합)팀의 일꾼, 스테판과 라리사



1. 자신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해주세요.

저는 현재 CIS팀에서 회장으로 섬기고 있는 스테판이고, 저의 아내인 라리사는 찬양팀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2001년 5월에 몰도바에서 한국으로 왔고 저의 아내는 6개월 전에 왔습니다. 현재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라리사는 핸드폰을 만드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2. 본인이 알고, 만난 예수님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저는 5년 전 늦게 이상이 생겨 좌측이 완전 마비되었었습니다. 모든 의사들이 가망이 없으며, 장애인이라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희망을 잃고 무척 힘들어 할 때, 라리사가 우연히 집에 있는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책을 읽다 보니 예수님이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내용이 실려 있었습니다. 라리사는 정말 놀라운 마음에 저한테 같이 읽자고 권했고 집에서 함께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장을 우연히 지나가다가 전도자를 만나주신 사람을 만났고, 온 가족을 데리고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예배 도중 목사님이 예수님을 영접하길 원하는 사람은 앞으로 나오라고 해서 나갔는데, 앞에 나서는 분이 기도하는 중에 머리 위에 놓인 무거운 것이 없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정말 오랜 췌개의 기도를 되었습니다. 그 이후 정말 너무 기쁜 마음에 불현듯 몸이지만 예수님에 대해 말하고 싶어서 건넌 수가 없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에 대해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교회의 2층을 보수하는 공사를 해야하는데 돕는 사람을 찾는데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건기조차 힘들었지만 돕고 싶은 맘에 자원을 하였습니다. 친구들은 몰나이라도 가져다 주어도 된다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아내는 그날 하루 종일 저를 위해 기도를 했고, 2층조차 걸어서 오를 수도 없었던 저는 그날 하루 종일 큰 땅치를 들고 도울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3. 흥연 교회에 언제,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한국에 처음에 왔을 때, 경기도 가산에서 인하게 되었습니다. 주일날이 되어 교회를 찾아 나섰지만, 러시아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던 중 러시아어로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교회에서 주일마다 제가 살고 있는 곳까지 버스가 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수소문을 해서 그 버스가 오는 시간과 장소를 알았지만 그 버스는 몽골인들만을 싣고 가는 버스이기에 사람이 많으면 탈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나가 그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두 시간을 기다린 끝에 버스를 탈 수 있었고 그렇게 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4. 전도에 본 경험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는 현재 교시원에 살고 있는데 그곳에 CIS에서 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사는 모습 그 자체가 전도이기에 늘 말씀가운데 살고자 노력하고 러시아어로 된 설교 테이프를 구해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난 사람들과 함께 토요일마다 구역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라리사 역시 공장에서 전도를 해서 그 친구들과 함께 구역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5. 앞으로의 자신의 계획이나 비전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제가 맨처음 교회 버스를 타고 흥연 교회에 올 때부터 생각했는데 돈을 모아 불교차를 사고 싶습니다. 그래서 몰도바에 있는 저희 교회로 돌아가면 멀리까지 가서 전도를 하고 그 사람들을 주일마다 불교차로 데리고 오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흥연교회처럼 좋은 교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엄정실 기자)

3차 단기선교에 즈음하여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1:8)

선교의 주제는 성령날마다이다 -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선교의 주제는 사람도 아니고 프로그램도 아니다. 선물은 더덕올 아니다. 선교의 주제는 성령날마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를 주관하시도록 기도함으로 선교를 준비해야 한다. 많은 계획과 준비로 선교를 시작하지만 선교현장에서 우리가 준비한 것과는 다른 선교를 하고 있을 수 있다. 노방전도를 열심히 준비했으나 일대일 전도만 하고 돌아올 수도 있다. 또한 이미움을 준비했으나 어린이 사역만 하고 돌아올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을 했는가 아니고 내게 성령이 임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을 따라 행동했는지가이다. 베드로와 스데반도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을 증거하였대(행 4:8-6:10). 빌립은 성령에게 이끌리어 내시에게 나아갔대(행 8:20). 사도행전 9장의 성도들도 성령의 위로로 선교하였대(행 9:31). 베드로도 성령의 감화로 전의와식을 뛰어 넘어 선교에 임하였대(행 10:34-35). 바나바와 바울도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선교의 길에 임하였대(행 13:4). 어떻게 볼 때 선교는 성령날을 빼고는 생각할 수 없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하기도 한다. 우리는 지금 성령날의 임상과 권능을 받아 성령날의 인도를 따라서 새로운 선교행전을 쓰고 있는 것이다. 그 어떤 선교 전략이나 준비보다 앞서서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마음대로 일하시도록 우리의 생각을 드리는 것이 필요함 뿐이다.

성령의 권능은 선교의 동력이다 -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는 결코 선물로 선교하지 않는다. 1차와 2차에서 경험했듯이 선물은 선교의 문을 열어 주고 선교현장에 가서 근한 선을 쓴다. 사도들은 선물인 아닌 '권능'으로 예수님을 증거했다(행 4:33). 스데반의 순교적 선교행전의 비밀도 이 '권능'이었다(행 6:8). 사마리아를 뒤집어 놓은 빌립의 선교의 동력도 '권능'이었다(행 8:13). 선교 역사는 권능의 일재를 동반하였다. 성령의 권능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 하게 하므로(행 15:26)' '예수를 주라 시인 하게 한다(고전 12:3)' 그러므로 우리가 구할 것은 바로 이 성령의 권능이다. 자기기생적으로 선교를 계획하거나, 세속에 물든 인본주의적 사고에서 떠나지 못해 인간들에게서 도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영도의 성령의 권능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한다.

선교는 보내는 자의 뜻을 따라서 해야 한다

하나님의 증인이 우리는 보내는 자의 뜻을 따를 때 선교의 도구가 될 수 있다. 단기선교의 사명은 증인들의 바른 선택에 있다. 선교의 여정은 모든 신실한 복음의 동자들이 조종·위협·저지·정복·협력·환관·투쟁·순교·파선·독사에게 물림·시기·모함·요새가 있을 수 있다. 선교하면 할수록 다른 한편에서는 마귀가 발악을 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오해를 넘어서 명랑하게 나아가야 한다. 회개하고 성령날을 체험하고 권능을 받아야만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다. 보내인의 뜻을 알았음으로 깨달음 때야만 비로소 우리는 선교의 도구가 될 수 있다. 공예배 시기에 선교되는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을 깨닫도록 간구해야 한다.

하나님께 감사하자

3차 단기선교가 1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10개국에 28팀 파송을 준비하고 있다. 그 외에도 2003년도 1월에 파송될 팀이 구성되어 준비 중에 있다. 우리를 선교의 도구로 삼아 주심이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의 일에서 주님이 기뻐해 주실 일이 있다면 선교하고 전도한 것 아니겠는가? 복음의 능력을 믿고 기도로 준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직 믿음의 권능으로 나아가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 구원의 기쁨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해 품고 흔들고 기도하며 복음의 씨앗을 심고 돌아오자. 그리고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역사하실지 기대하며 감사하자.

(이종철 목사 - 선교위원회지도)

이번주 출발하는 선교단 및 기도제목

우즈베키스탄

4교 단기선교단(11월 19일-27일)

안그런 지역과 외국 농촌 지역

1. 안그런 농촌마을에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2. 모든 단원들이 담대함을 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게 하소서.
3. 단원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소서.

슬리랑카

8교 단기선교단(11월 19일-27일)

켈라타, 하우타레, 만다라레라, 열라 지역

1. 노방전도와 심방전도를 통하여 그들에게 필요한 복음을 담배이 전하게 하소서.
2. 이미용 사역에 치중하지 않고 이 사역을 통해 복음을 지혜롭게 전하게 하소서.

현재 사역 중인 선교단

부서	사역지	날 짜
10교구	알렉산드리아	11월 11(월)-23(토)
14교구	알렉산드리아	11월 11(월)-23(토)
7교구	불가리아	11월 12(화)-22(금)
11교구	불가리아	11월 12(화)-22(금)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단기선교를 위하여 마음을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추진희 (대학부 교사)



아침에 마태복음 27장을 묵상했습니다. 이 장은 인간의 죄악상에 대조되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가뭇 유다를 통해 윤리적 인간의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죄를 뉘우쳐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찾아가 자기의 잘못을 고백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은 하나님의 섭리, 예수님의 말씀에 전혀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스스로 죄를 뉘우치는 윤리적 행위가 아니라 믿음임을 보여줍니다. 빌라도를 통해 자기 판단과 상관없이 군중에 이끌려 오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주를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자신이 악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군병들은 예수님께 침을 뱉고 때리는 등 예수님을 더 악하게 조롱하고 모욕을 주며, 군중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며 갈수록 예수님을 모욕하는 정도가 심각해집니다.

전 이들의 죄악상을 보면서 감히 그들을 정죄할 수 없었습니다. 윤리적, 종교적인 모습, 제가 문제를 해결하려는 열심, 주님이 아니라 주님의 눈치를 보는 행동 등 세 안에도 이들이 저지른 죄의 본성이 그대로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과 동시에 위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진 것이지요. 그러나 죄악으로 가득 찬 인간은 아무도 그 사실(구원의 성취)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해야 할 구원의 성취를 위한 축제를 자연이 대신합니다. 폭죽을 대신하여 바위가 터지고 음악을 대신하여 땅이 진동함으로 축제를 열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눅 19:40)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실현된 듯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입을 벌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제림을 선포하지 않는다든, 자연들이 요동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우리는 전해야만 합니다. 오늘의 묵상은 제게 큰 기쁨과 부름을 주었습니다. 아마도 아직까지도 내가 알아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제 안에 주님의 자리가 더욱 커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닌 것은 꿈과 타협하지 않기를...

이덕용 (대학부 4학년)

참으로 오랫동안 제 삶을 괴롭혔던 녀석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스타크래프트라는 오락입니다. 그 동안 이 오락 때문에 매일같이 새벽잠을 설치기도 했고, 수업 시간에 늦을 뻔 한 적이 두어번씩 지각치러가 된 적도 많고 있었습니다. 여러 번 이놈을 걸릴 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기도도 했었고, 나름대로 자신을 통제하지 못함에 대해서 자책하고 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결국 이 녀석을 떠나보냈습니다. 어떻게 했나요? CD를 부숴버렸지요. “그 단을 험비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부술라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찢어서 그 이름을 그 곳에서 멸하라” (신 12:3)라는 말씀처럼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것을 진작에 알았지만 교묘하게 무시했었습니다. “오라키 뭐가 나빠.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 나쁘지 오락은 나쁜 것이 아니야”라고 스스로를 위안하면서요. 이런 무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실천에 옮겼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고 손쉬운 것을 왜 그동안 미쳤을까? 물론, 저의 욕심때문이었지요. 기분이 잘 옵니다. 마치 성경에서 읽었던 바알과 아세라상들을 부숴버리는 장면같이 아서 통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학교 때, 주님의 은혜를 받고 그 전에 즐겨듣던 가요메이플을 야구방망이로 때려부수던(정말로 때려부셨음) 때가 생각이 납니다. 이런 예수님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에 맞는 사랑과 보살핌을 우리에게 주시듯이 사단도 시대에 따라서 우리에게 달콤한 유혹의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께 주신 우리에겐 그것을 분별할 능력을 주셨고 우리가 원한다면 그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아닌 줄 알면서 절절 끌려가는 나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롬 13:14)

예수께서 주신 은혜

권오인 (대학부 4학년)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대학부 학생회 사역을 마치게 되어 참으로 기쁜 마음으로 글을 씁니다.

저는 부모님의 인도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닌 이른바 모태신앙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는 하였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지식적으로만 알고 마음 깊은 곳에선 받아들이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중년 교

회 대학부 학생회에서의 1년 동안의 사역을 통해 저는 복음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이 참된 나의 주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참 게으르고 이기적인 아이였습니다. 집에서 어머니께서 힘들게 직장을 다녀 오신 후에 청소가 안 되어 있는 걸 보시면 치우라고 하셔도 잔소리로 여기고 변명하고 청소하지 않았던 게 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청소를 때마다 행위를 의로 여기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 20:28)라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까지 낮아지셔서 자신의 이름을 높이지 않고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이 생각나서 회개했고, 수련회나 집회를 무사히 끝낸 후에 이 사역을 맡아진 원인을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이라 생각이 들 때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사역을 마친 후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을 생각하며 회개했습니다. 대학부라는 공동체를 섬기면서 끊임없이 나라는 죄인의 본성을 느꼈고 그 때마다 예수님의 은혜를 느껴서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지치고 힘들 때마다 이겨낼 수 있었던 건 예수님의 십자가를 조금이나마 알게 되어 감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참 많은 선물들을 주셨네요. 선교에 참여하게 하셔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선교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대학부 안의 여러 믿음의 동역자들을 불러주시는 등 해야 할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이러한 많은 은혜와 선물을 주신 것은 앞으로 저라는 사람을 통해서 계획하신 주님의 일을 감당하라는 명령이라고 믿습니다. 나의 삶의 목표를 언제까지나 우리를 위해 십자가위에 죽으시고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것을 위해 저를 사용하신 이분 1년이 저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기억될 것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놀라운 신 주의 이름 - 후기

지금까지 본 단에서는 성경에서 불리진 예수님의 이름들을 통하여 그분에 대하여 더 깊이 알아보았다. 그분은 기묘자로서 우리의 권태를 제거하시며, 모사로서 우리가 바른 삶을 살도록 지도하신다.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삶의 요구들을 처리하시고, 영혼하시는 아버지로서 우리를 완전히 의지하게 하시며, 평강의 왕으로서 우리의 모든 불안을 제거하신다. 우리의 보충으로서 모든 빚을 갚아주시고, 어린양으로서 모든 죄를 사해주시며, 알파와 오메가로서 모든 것을 완전히, 은혜로, 영원히 책임지신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름은 무엇인가? 우리의 이름은 ‘존경받는 자’인가? 우리의 이름은 ‘선생’인가? 우리의 이름은 ‘인격자’인가? 우리의 이름은 ‘세상에 영화로운 자’인가? 천만에 말씀이다. 우리의 이름은 ‘게르온’ 자이며, ‘무지한 자’이고, ‘의지하는 자’이며, ‘짜누는 자’이고, ‘죽을 자’며, ‘불한탄 자’, ‘빛나는 자’, ‘죄인’이다. 누가 이것을 부인하겠는가? 지금 바로, 주님께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하라. 그리고 그분께 복종하라. 그분을 믿으라. 그분께 우리의 삶의 주권을 맡기라. 위선으로서 아무 것도 인지 못한다. 그 다음 그에게 우리의 현재 모습을 용서해주시기를 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마땅히 되어야 할 모습을 그 자 만드기를 그에게 말씀드리라.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분이 어떤 불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분은 우리의 이름을 바꾸어주시 것이다.

그분께서 바르주신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 ‘의롭다 함을 받은 자’, ‘천국복생’, ‘전도자’, ‘빛과 소금’, ‘제자’ 등이다. 자, 지금 이 글을 읽는 사람은 자신이 존경받는 자라고 생각하는 단체인가? 빛진 자라고 생각하는 단체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자요, 전도자인가? 이름은 자신의 상태를 보여준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갖는 자는 당연히 제자, 전도자라는 이름을 동시에 가져야 한다. 몇 십 년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제자나 전도자의 이름에는 어울리지 않게 살지는 않는가? 그것은 불합리하다. 자신의 이름이 과연 무엇인지 끈질기게 생각해 보라.

(권오섭 기자)

구역장 영성훈련

감사하는 자 (눅 17:11-19)

13교구 김익환 목사



우리는 종종,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주님께로 달리고 아뢰지만 평안해지면 기도에 뜰새도 없다. 그러나 이런 행위는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이다. 진정한 영적인 축복은 평안 이후에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과 관계를 맺는 것에서 시작하기 때문이다.

본문에서로 주님께 아뢰므로 치유 받은 열 명의 문둥병자 중, 그냥 가버린 아홉 명은 육신의 병고침을 받았을 뿐이지만 돌아와 감사한 한 명은 영혼의 구원을 얻었다. 그럼, 그냥 가버린 아홉 명의 문둥병자와 돌아와 감사한 한 명의 문둥병자는 무엇이 다른 것일까? 그들은 믿음의 기준이 달랐다. 아홉 명은 자신의 병이 나을 것을 믿음으로 그대로 병이 나았지만 그것으로 끝이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일이 해결되자 끝난 것이다. 그러나 돌아온 한 명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 주실 것을 믿었고, 병 고침을 받아 예수님께 감사하러 왔다. 그 한 명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이 아니라 주께서 하셨다는 것이다.

다윗과 다니엘, 사도들도 중심이 자신이 아니라 주님께 있었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었다. 우리는 왜 불평하는가? 믿음의 중심이 나 자신에게 있기 때문이다. 돌아온 한 문둥병자는 병을 통해 예수님을 보았지만 나머지 아홉 명은 병의 나눔만 보았다. 한 명의 문둥병자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사도들처럼 우리 자신이나 환난 자체가 아닌, 그것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예수님을 보자. 감사를 금대집에 담아 올려 드리자.

(권요섭 기자)

다음 주일 찬송

383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프레드릭 윌리엄 페이버(Fredrick W. Faber, 1814-1863)가 1849년에 작한 것으로, 히브리스 12장 1절의 "허다한 증인들"이 머리에 떠오르는 찬송이다. 그들이 보이는 않지만 우리 주변에 둘러서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용기를 얻어 '인내로 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게' 된다. 기독교 신앙은 목숨을 바쳐 믿음을 지킨 허다한 사람들의 유산이다. 참형을 당한 바울, 몸에 부거운 돌을 달아 물에 빠져 순교한 심포로사, 불 속에서 순교한 폴리갑과 같이...

- 1절: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임하셨네, 이 신임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 2절: 옥 중에 매인 성도나 앙심은 자유안되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 3절: 성도의 신앙 본받아 힘으로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리,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부드러운 3박자인 이 곡은 각각의 음마다 가사를 소리에 일치시켜 노래해야 하며, 각 프레이즈(모두 4마디씩)로 구성되어 있음은 정확히 지켜서 노래한 후 숨을 쉬도록 한다. 그래서 환난이나 핍박에도 굴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찬송해야 할 것이다.

양호실

7교구 박수환 씨(남39세) 뇌신경 약물치료 중입니다. 믿음을 회복하여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12교구 김영준 성도(남74세) 뇌근경색중으로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건강이 빨리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14교구 김성영 성도(남78세) 뇌경색으로 몸이 마비되어 입원 중입니다. 건강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정호 성도(남25세) 오토바이로 출근하다 교통사고로 무릎을 수술했습니다. 현재 다리와 팔 부위를 깁스 중입니다. 빨리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천양위원회)

"한 길 가는 순례자" 중에서 시편 122편

여호와와 이름에 감사하려고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이 명령이야말로 예배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은, 우리를 만드셨고 구속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에 대한 지극히 당연한 반응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 행위를 옮겨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께의 구원을 보리라"(사 50:23).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그의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서, "별로 감사를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정적하기도 못하고 원시일 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감정이야말로 믿을 것이 못됩니다. 오직 드리고 다스릴 때만 예배한다면 예배는 아주 희귀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좋은 감정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거기 판단의 보좌를 두었으니 곧 다윗 집의 보좌로다

판단의 보좌는 말씀이 선포되는 장소입니다. 판단이란 어떤 것에 관한, 즉 사물이나 사태를 묘사하는 내용이 아니라,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의 뜻대로 친히 집행하시, 바로잡고 해결하시는 결정-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무릇 열기 있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시나리라 하라 하더라"(사 2:13).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에, 우리의 전인격은 하나님의 판단으로 새로워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결정에 귀 기울이게 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라"(계 2:29).

네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네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라, 여기서 구하라는 말은 일상에서 항상 드리는 건구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서 언제나 구해야 할 평안은 무엇일까요? 평안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부족한 없이 완전한 상태입니다. 겉으로는 불안해 보이고 무엇이든 든든한 것이 확보되지 않더라도, 비록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완성될 때, 우리는 평안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집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다하시고 우리의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매순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의 성리 하에 있음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립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형통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 때만 아니라, 일상에서 모든 평안과 형통함이 하나님의 뜻을 지속적으로 이루기 위해 그의 여정을 계속 따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일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에 쌓여있던 모든 금금함과 욕구를 해결(解渴)하여 답답함을 떨쳐버리고 상쾌한 기분으로 일상을 지내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부여받은 유일한 피조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대적인 근거입니다. 즉 예배는 영적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께 영으로, 전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길을 가고자 하는 길고도 본질적인 갈급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요 4:23-24)".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에서 진실로 "자신이 사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며,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사 42:1,2)?

(다움주에 계속) (임혜원 기자)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서만용 ♥ 장원숙 부부를 소개합니다



저는 가구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78년을 살아오면서 자야가 강했는지 어떤 종교도 믿지 않고 오직 자신만 믿고 열심히 사업하며 살아왔습니다. 단, 부모님에 대한 생각으로 제사는 지냈지만, 개인적으로 유교가 나라를 망친 것으로 생각했고, 내세는 없으며 살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그만이라고 여기며 살았습니다. 아내인 장원숙 성도가 92년도에 충현교회에 나와 학습을 받고 저를 전도했지만, 아내도 바쁘다고 교회를 자주 빠졌고 99년에서야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은 아내가 제게 예수님을 믿을 것을 열심히 권했고, 어차피 죽음으로 끝날 인생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구원을 얻는 것이 합당하게 여겨져 교회에 나왔습니다. 본당 예배에서는 장엄합창, 새가족부 교육은 계획적이고 철저하다고 느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면서 인생의 최문제 특히 나와 최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구원을 얻게 해 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새가족부에서 봉사하시는 여러분들의 수고와 특히 담임교사의 친절함이 기억에 남습니다. 신앙생활이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앞으로 열심히 교회에 봉사하고 싶습니다.

(한준명 통신원)

친구초청 전도잔치

한 성민 (유년부 2과2반)



유년부에서는 지난 10월 27일에 친구초청 전도잔치가 있었다.

새로운 친구들이 많이 왔다. 우리들은 새 친구들을 축하해 주었고, 인형극, 마임, 성경 말씀, 성가대 찬송 등 재미있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친구들은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믿음과 소망,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기쁘다. 예수님을 믿고 자란 사람은 나중에 천국을 가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지금도 선생님들은 다른 나라에 가서 전도를 하고 계시다.

이 세상은 원래 깨끗했다. 그러나 죄 때문에 더러워졌다. 다시 깨끗하게

러면 전도를 많이 해야 한다. 하나님은 전도하는 걸 좋아하신다. 우리 할머니, 삼촌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나는 할머니, 삼촌이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도한다. 우리 나라 사람 모두 예수님을 믿고 다른 나라 사람도 믿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구원 받은 세계가 되게 해주세요.

십자가

심 규 호 (소년부 전라9반)

우리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성찬식을 하지 못한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가지 말씀, 가장치언이라고 한다.

사람은 탐지하면 목이 마른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목이 마르다고 하셨다.

로마에서는 죄지으면 십자가 형벌을 가했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만 가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는데 십자가에 못박히셨다.

예수님께서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목 마르다고 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 없지만,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딱 한 가지가 이유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없으신 아들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못박히게 하셨는지 알 수 없다.

우리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

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다.

누구든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신 것을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작한 일을 애써서 천국 갈 수 없다.

왜냐하면 죄가 그대로 있기 때문이다.

이 모든 구원의 길을 예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는 다른 길로 가면 지옥가게 되고 더 이상 갈 길이 없다. 많이 감명하다.

우리는 예수님께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감사해야 한다.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매일 시간을 정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필요한
무슬림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11월 18일(일)

린시아 시(市) - 중국의 작은 메카

중국 북서쪽의 메카란 사람 안에 위치한 중국의 작은 메카 린시아 시(市)! 소수의 크리스천조차 린시아 시(市)에 있는 무슬림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희망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다. 미국의 '무슬림 학생 연합'은 캠퍼스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무슬림으로의 개종을 시도하고 있다.

1. 하나님께서 린시아 시(市)에 있는 무슬림들에게 믿음 안에서 복음을 들고 갈 사람을 보내 주시도록 기도하자.
2. 한국 사람들이 후회하고 동양 무슬림에게 복음을 가지고 접근하도록 기도하자.

11월 19일(화)

미국의 무슬림들

현재 미국 전역에는 1,200개 이상의 모스크가 있고, 6백만에서 7백만 정도의 무슬림이 있다. 미국의 '무슬림 학생 연합'은 캠퍼스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무슬림으로의 개종을 시도하고 있다.

1. 미국 교회가 깨어서 미국 무슬림에 접근하는 것과 중보하는 것을 도전하도록 기도하자.
2. 대학 안에 무슬림이 영적인 갈급함이 자라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르심을 받도록 기도하자.

11월 20일(수)

마케도니아의 무슬림

발칸(크로아티아, 보스니아, 코소보, 마케도니아)에 있는 각각의 고유 종족들은 불신, 신입전, 중요, 투쟁의 결과로서 다른 종족 그룹을 경멸하고 그들 자신의 권리를 위해 투쟁하고 있다. 현재 마케도니아에는 4개의 주요 무슬림 민족 그룹이 있다.

1. 마케도니아 무슬림들이 기독교인으로 개종하는 것처럼 민족 그룹 간의 적대감으로 나뉘어진 것이 무너질 수 있도록 기도하자(엡 2:14-17).
2.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무슬림들이 나라 주변의 새로운 교회의 중대를 위해 열정적으로 자신의 새로운 믿음을 나눌 수 있도록 기도하자.

11월 21일(목)

민다나오

필리핀 무슬림의 역사적 본향인 민다나오는 13개 종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이러한 상황에서도 필리핀 전도자들이 자신의 동족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들고 들어 가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역을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사역자들이 필요하다.

1. 각각의 필리핀 무슬림들이 진정한 복음을 자국에서(自國)로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자. 이를 위해서는 많은 현지인 사역자들이 필요하다.
2. 무슬림 종족 사이에 하나님의 교화가 세워지도록 기도하자. 복음을 들은 이들이 믿음과 용기로 살도록 기도하자.

11월 22일(금)

알제리아의 호기트레그스

1. 호기트레그스에 주님의 복음이 들어가도록, 현지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도록 기도하자.

11월 23일(토)

인도의 무슬림 여성들

인도에 있는 600만 정도의 무슬림 여성들은 교육을 받지 못한 뿐 아니라 복음을 들을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있다.

1. 인도의 많은 무슬림 여인들이 하갈과 같이 '내가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노라'라고 고백하고 증거하도록 기도하자.
2. 인도 안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서 무슬림 여성들에게 복음의 지혜와 이해로 접근하도록 기도하자.

11월 24일(주일)

지도자들

아프가니스탄의 국무총리 '하미드 카자이', 온건파의 무슬림 정치가인 닐로와 바티아르, 인도네시아의 국민당 지도자 아메인 레이스, 팔레스타인 그룹 하마스의 영적 지도자이자 철학자인 셰이크 암메드 아신 등과 같은 이슬람 지도자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

1. 이들 지도자들이 그들의 나라에서 선하고 합법적인 체제와 정치적 영향을 끼치고 그들의 법이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가 인정되고 확장될 수 있도록 기도하자.
2. 이슬람 각 지도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고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또한 그들의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지도록 기도하자.

인용 :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